

보도자료

이 자료는 배포시부터 취급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
제 목 : [BOK 강원경제 메모 2호]

최근 강원지역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의 특징 및 대응 방안

- 도내 소비자심리지수, 작년말 이후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크게 하락
 - 특히 소비지출전망이 악화되어 소비 위축 우려
 - 기업심리지수도 동반 하락한 점은 과거 경제위기와 유사
- 최근 소폭 반등에도 올해 상반기 중 하락 이전(24.11월) 수준 회복은 어려울 가능성
-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한 가운데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적인 경기 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 재정집행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긴급

※ 주요 내용은 <붙임1>[BOK 강원경제 메모 <2025-2호>]을, 보다 자세한 내용은 <붙임2>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문의처 : 경제조사팀 과장 정성환

Tel : (033) 258-3281 Fax : (033) 257-0525 E-mail : gangwon@bok.or.kr

“한국은행 강원본부 보도자료는 인터넷(<http://www.bok.or.kr/gangwon>)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”

BOK
강원경제
메모
<2025-2호>

한국은행 강원본부
경제조사팀
2025년 3월 13일(목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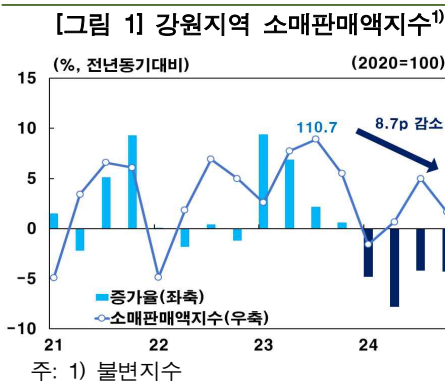
작성자: 정성환 과장
(033-258-3281)

최근 강원지역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의 특징 및 대응 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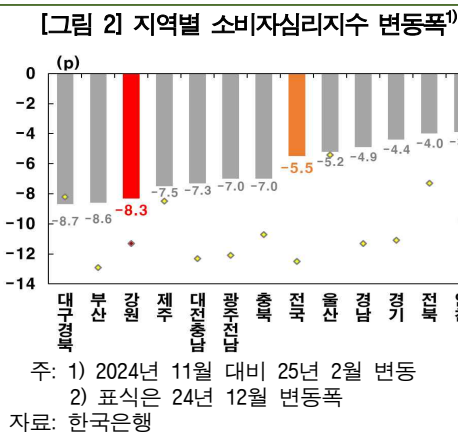
- ◆ 강원지역 소비가 부진한 상황에서 소비심리가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 이후 크게 하락
 - 대구경북, 부산에 이어 낙폭이 가장 큼
 - 소비자심리지수와 기업심리지수가 동시에 급락한 경우는 역대 세 번째(과거 사례: 08년 금융위기, 20년 코로나19 위기)
 - 과거 탄핵 사례('16년)보다 금번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남
 - 특히 하위 항목중 소비지출전망이 크게 악화되어 가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
- ◆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,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 등으로 소비심리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전망
 - 향후 소비심리 회복에는 ① 탄핵안 심의 결과, ② 경기부양책 실시 여부, ③ 美 관세정책 등이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
- ◆ 정치와 경제의 분리, 신속·과감한 재정집행, '강원방문의 해' 적극 추진 등을 통해 심리 회복을 유도할 필요

[그림1] 도내 소매판매 지수가 4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역내 소비는 부진을 지속

강원지역 소비 부진 지속



12개 광역자치단체중 3번째로 큰 하락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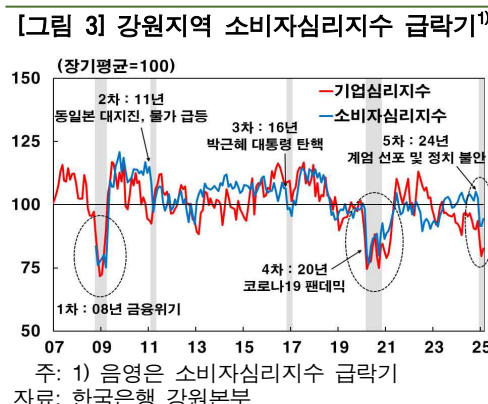


[그림2] 24.12월 이후 소비자심리지수가 대구경북, 부산의 뒤를 이어 3번째로 큰 폭 하락

자료: 통계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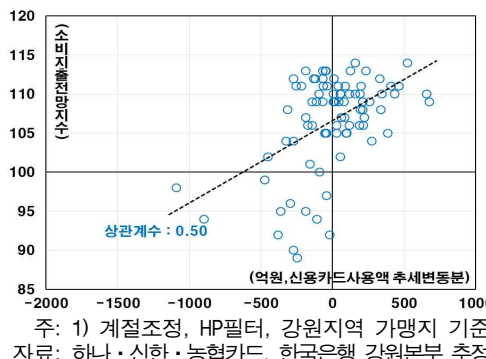
[그림3] 기업심리지수가 동반 하락한 것은 16년 탄핵 사보다 08년 금융위기, 20년 코로나 위기와 유사

심리지수들의 동반 급락은 경제위기와 유사



특히 소비지출전망지수가 크게 하락하여 가계 소비가 둔화될 우려

[그림 4] 소비지출전망지수와 신용카드사용액¹⁾



[그림4] 강원 소비지출 전망지수는 신용카드 사용액과의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

최근 강원지역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의 특징 및 대응 방안

2025. 3

본 보고서의 내용은 작성자 개인 의견이며 한국은행의 공식견해와는 무관합니다. 본 보고서의 내용을 보도하거나 인용할 경우에는 작성자 이름을 반드시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한국은행 강원본부

작성자 : 강원경제조사팀 정성환 과장

차 례

I. 검토 배경	1
II. 강원지역 소비자심리지수 급락의 특징	3
1. 12개 광역자치단체 중 3번째로 큰 하락폭	3
2. 과거 탄핵 사례보다 경제위기 사례와 유사	4
3. 과거보다 가계 소비에 대한 영향이 클 가능성	6
III.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	7

I. 검토 배경

□ **[소비 부진 지속]** 작년 강원지역 소비는 소득개선 지연, 고물가 등으로 소매판매가 4분기 연속 감소하는 등 침체된 흐름

* 소매판매액지수가 전년동기대비 4분기 연속 감소한 것은 통계편제(10년) 이후 처음

○ 특히 23.3분기 이후 소매판매지수가 17개 시도중 가장 크게 하락(Δ8.7p)

□ **[최근 소비자심리지수 급락]** 이에 더하여 지난해 말 도내 소비자심리지수*가 급락하면서 추가적인 소비 위축 가능성에 대한 우려 증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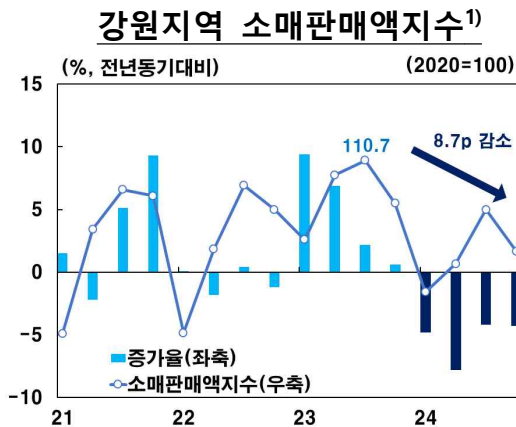
*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전망을 설문조사하여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로 자세한 내용은 “<참고 1> 소비자심리지수(CCSI) 개요”를 참고

○ 24.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1.3p 하락(102.8 → 91.5)하였으며 이는 08.10월 통계편제 이후 3번째로 큰 낙폭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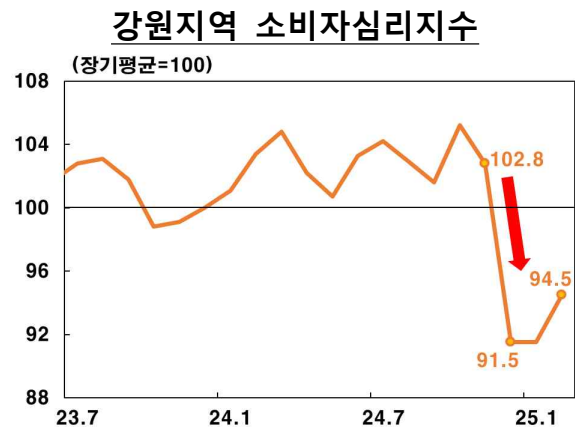
* 소비자심리지수 하락폭 순위: 1위 Δ18.0p (20.3월 코로나19 초기)
2위 Δ11.5p (11.3월 동일본대지진 및 물가 급등)

○ 25.2월에는 소비자심리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 상승(91.5 → 94.5, +3p) 하였으나 여전히 기준점(100)을 상당폭 하회하는 상황

⇒ 소비자심리지수 하락의 특징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을 제시



주: 1) 불변지수
자료: 통계청



자료: 한국은행

<참고 1> 소비자심리지수(CCSI) 개요

□ 소비자심리지수(CCSI, Composite Consumer Sentiment Index)는 소비자동향지수(CSI)중 현재생활형편, 소비지출전망 등 6개 지수를 합성*한 지수

* 6개 개별지수를 표준화 구간(2003년~전년 12월, 매년 초에 전년 12월까지 연장)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이를 합성한 종합적인 소비자심리지표임

○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크면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인식이 과거(2003년~전년 12월) 평균보다 낙관적,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

□ 소비자동향지수(Consumer Survey Index:CSI)는 소비자의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소비지출전망 등을 설문조사하여 그 결과를 지수화한 통계

○ 개별 소비자동향지수 = $\frac{(\text{매우긍정} \times 1.0 + \text{다소긍정} \times 0.5 + \text{비슷} \times 0.0 - \text{다소부정} \times 0.5 - \text{매우부정} \times 1.0)}{\text{전체 응답가구수}} \times 100 + 100$

조 사	항 목	조 사 내 용
경제인식	현재생활형편 ¹⁾	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
	현재경기판단 ¹⁾	"
경제전망	생활형편전망 ¹⁾	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
	향후경기전망 ¹⁾	"
	취업기회전망 ²⁾	"
	금리수준전망 ²⁾	"
소비지출전망	가계수입전망 ²⁾	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
	소비지출전망 ²⁾	"
가계저축 및 부채	현재가계저축 ²⁾	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
	가계저축전망 ²⁾	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
	현재가계부채 ²⁾	6개월 전과 비교한 현재
	가계부채전망 ²⁾	현재와 비교한 6개월 후 전망
물가전망	물가수준전망 ²⁾	현재와 비교한 1년 후 전망
	주택가격전망 ²⁾	"
	임금수준전망 ²⁾	"

주 : 1) 100보다 큰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,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를 나타냄
 2) 100보다 큰 경우 증가 또는 상승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가 감소 또는 하락할 것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, 100보다 작은 경우 그 반대를 나타냄

II. 강원지역 소비자심리지수 급락의 특징

1 12개 광역자치단체* 중 3번째로 큰 하락폭

* 소비자심리지수를 별도 편제하지 않는 서울 등은 미포함

□ **[대폭 하락]** 도내 소비자심리지수는 정치적 불안이 고조된 이후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크게 하락($\Delta 8.3p$, 24.11월 대비 25.2월 기준)

○ 강원과 더불어 대구경북, 부산의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관광 산업의 비중이 높은 제주의 하락폭도 두드러짐

□ **[미래보다는 현재를 비관]** 구성항목별로 하락폭을 비교해보면, 주로 현재 상황에 대한 평가가 미래에 대한 인식보다 더욱 크게 악화되는 모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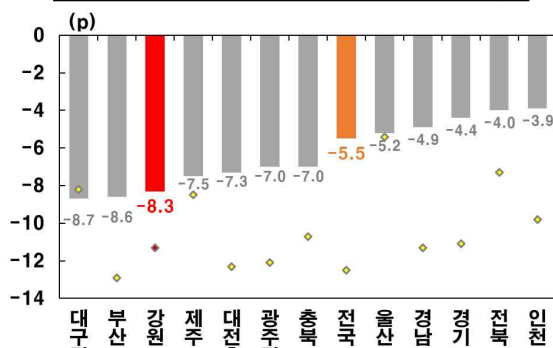
○ 현재생활형편($\Delta 1.3p$, 표준화계열 기준)과 현재경기판단($\Delta 1.2p$)의 하락폭이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내는 등 도내 소비자들은 현재 상황에 비관적

○ 반면 생활형편전망($\Delta 0.3p$)은 12개 시도중 11위를 기록하는 등 미래 상황에 대한 인식은 他 시도대비 대체로 양호*

* 향후경기전망(5위), 소비지출전망(5위), 가계수입전망(7위) 등 다른 전망과 관련된 항목도 중위권을 유지

— 도내 소비자들은 현재 상황에 대해 구조적 문제보다는 일시적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

지역별 소비자심리지수 변동폭¹⁾²⁾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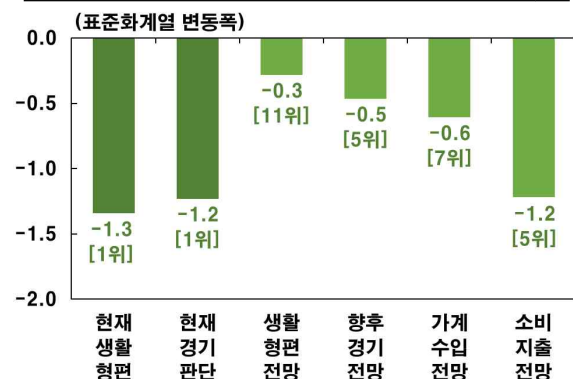


주: 1) 24년 11월 대비 25년 2월 변동

2) 표식은 24년 12월 변동폭

자료: 한국은행

소비자심리지수 하위항목별 변동폭¹⁾²⁾



주: 1) 표준화된 계열의 24년 11월 대비 25년 2월 변동

2) [] 안은 12개 광역자치단체 중 순위

자료: 한국은행

2 과거 탄핵 사례보다 경제위기 사례와 유사

□ [전반적인 심리 위축] 금변에는 과거 탄핵 사례*와 달리 소비자심리지수가 기업심리지수**와 동시에 급락***

* 16.11월 촛불시위와 12월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에도 소비자심리지수는 급락했으나 기업심리지수는 장기평균을 상회

** 기업심리지수는 기업의 업황, 자금사정 등을 설문조사한 뒤 주요 지수를 표준화하여 산출. 자세한 설명은 “<참고 2> 기업심리지수 동향”을 참조

*** 변동폭의 표준편차가 95% 신뢰수준을 벗어난 경우(4.2p x 1.96 이상 하락)를 급락기로 정의하였으며, 공포 시작(08.10월) 당시 금융위기임을 고려해 급락기에 포함

○ 심리지수의 동반 급락은 금융위기, 코로나19 등 경제위기 상황에만 나타난 현상

□ [누적된 취약성 노정] 내수부진 지속 등으로 누적된 지역 경제의 취약성이 표면화되며 전반적인 심리 위축을 가속화한 것으로 판단

○ 일부 수출 기업의 실적호조*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업황이 악화되며 역내 기업실적의 양극화가 심화

* 휴젤, 파마리서치는 글로벌 사업 호조를 바탕으로 작년 4분기 분기 최대실적을 거두었고 삼양식품은 K-불닭볶음면 열풍에 힘입어 작년 창사 이래 최대실적을 기록

— 자영업자·소상공인의 폐업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계 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비가 더욱 둔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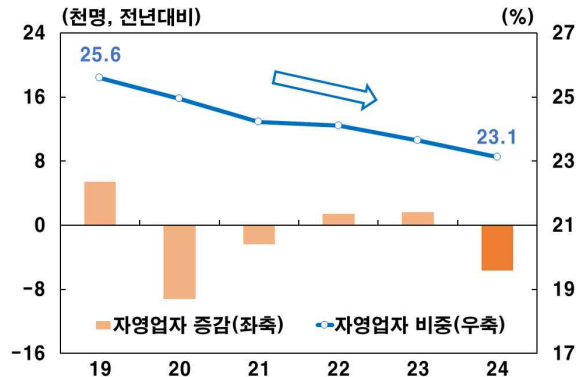
강원지역 소비자심리지수 급락기¹⁾²⁾



주: 1) 기업심리지수의 구계열과 신계열을 단순 연결
2) 음영은 소비자심리지수 급락기

자료: 한국은행 강원본부

강원지역 자영업자 비중 및 증감¹⁾



주: 1) 막대그래프는 전년대비 증감

자료: 통계청(경제활동인구조사)

<참고 2> 기업심리지수(CBSI)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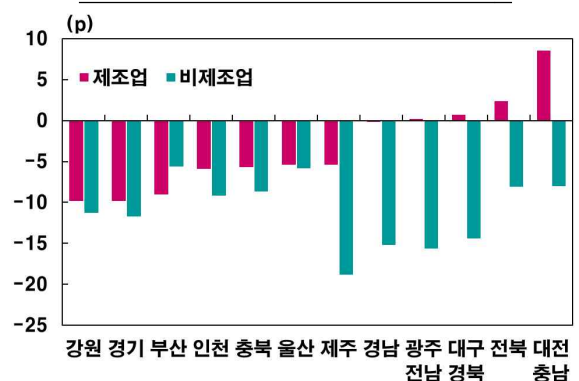
- **[개요]** 기업심리지수(CBSI, Composite Business Survey Index)는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중
 업황, 생산, 신규수주, 채산성, 자금사정 등 주요 지수를 평균하여 산출한 심리지표
 - 소비자심리지수가 가계의 소비행태와 밀접한 반면 기업심리지수는 생산
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로 영향
- **[동향]** 도내 기업심리지수(실적 기준)는 24.12월 크게 하락(93.6→84.7, △8.9p)
 하였으며, 현재(82.7, 25.2월)까지도 장기 평균(100)을 크게 하회하고 있는 상황
 - 특히 비제조업(79.3)은 80 이하로 하락하는 등 크게 부진
- **[지역간 비교]** 도내 기업심리지수는 제조업 또는 비제조업을 중심으로 하
 락한 일부 지역*과 달리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모두 하락
 - * 제조업 중심 하락지역: 부산
 비제조업 중심 하락지역: 대전충남, 대구경북, 광주전남, 전북, 경남, 제주
 비슷하게 하락한 지역: 경기, 인천, 충북, 강원, 울산
 - 제조업의 경우 9.8p 하락하여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으며, 비제
 조업의 경우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11.3p 하락

기업심리지수 추이¹⁾



주: 1) 구계열과 신계열을 단순 연결
 자료: 한국은행

지역별 기업심리지수 변동폭¹⁾



주: 1) '24.11월 대비 '25.2월 변동폭, 제조업 내림차순
 자료: 한국은행

3 과거보다 가계 소비에 대한 영향이 클 가능성

□ [소비지출전망 크게 악화] 금번 급락에서는 소비와 연관성이 높은 소비 지출전망 악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남

○ 통계 편제 이후 발생한 5번의 급락중 금번 사례는 소비지출전망지수가 두 번째*로 큰 영향을 미친 사례로 분석(기여율: 23.7%)

* 11.3월 동일본대지진 및 물가 급등 58.3%, **금번 급락 23.7%**, 20.3월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21.4% 20.9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18.5%, 16.11월 대통령 탄핵정국 11.1%

— 세부 항목별로는 내구재, 여행, 외식, 교양·오락·문화 등 비필수재 소비 전망 악화가 소비지출전망 하락을 주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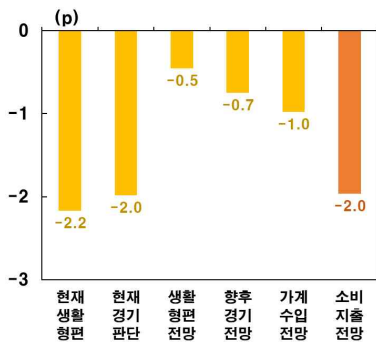
□ [소비부진 심화 우려] 소비지출전망은 소비와의 연관성이 강한 것*으로 알려져 있어 금번에는 소비에 대한 영향이 더욱 강할 우려

* 강원지역 소비지출전망지수와 신용카드사용액(추세제거분)의 상관관계는 0.50으로 다른 항목 대비 큰 것으로 나타남

○ 소비자동향조사의 기타 조사항목에서도 가계저축전망이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며 가계의 소비여력도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*

* 현재가계부채와 가계부채전망도 모두 악화된 것으로 응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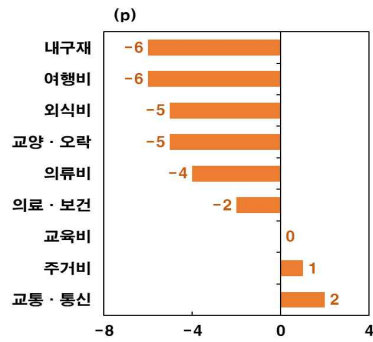
소비자심리지수 변동¹⁾
기여도



주: 1) 24년 11월 대비 25년 2월 변동

자료: 한국은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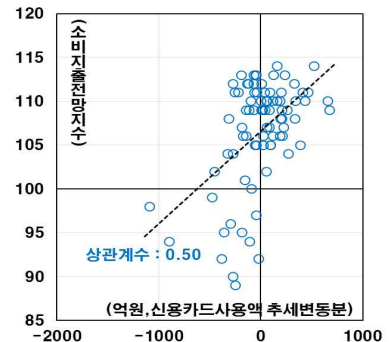
지출항목별 변동¹⁾



주: 1) 24년 11월 대비 25년 2월 변동

자료: 한국은행

소비지출전망지수와
신용카드사용액¹⁾



주: 1) 계절조정, HP필터, 강원지역 가맹지 기준 카드 사용액

자료: 하나카드, 신한카드, 농협카드, 한국은행 강원본부 추정

Ⅲ. 향후 전망 및 대응방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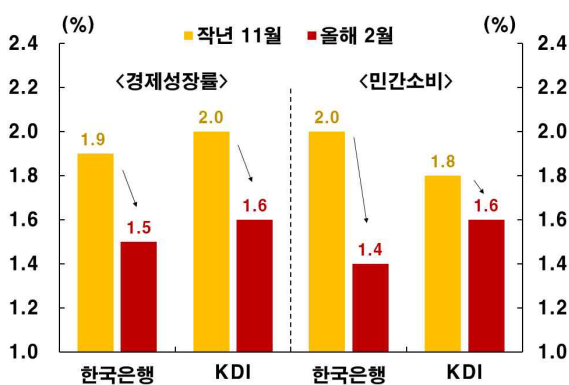
□ [일정기간 부진지속 예상] 계엄 종료 및 시장안정화 조치 등으로 소비심리가 최근 소폭 반등하였으나 상반기 중 이전 수준 회복은 어려울 전망

- 최근 정치성향에 따른 분열이 심화되는 데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도 하향 조정되고 있어 소비심리 회복 속도는 빠르지 않을 전망

□ [높은 불확실성] 향후 소비심리에는 ① 정치 프로세스, ② 경기부양책, ③ 대외 경제여건 등의 불확실성이 존재

- ① 탄핵안 심의 결과에 따라 정치불안이 심화되면서 향후 소비심리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
- ② 정부의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의 시기, 규모, 대상이 소비심리 회복 경로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
- ③ 미국, 중국 등 주요국의 무역정책 및 글로벌 통화정책 기조 변화도 소비심리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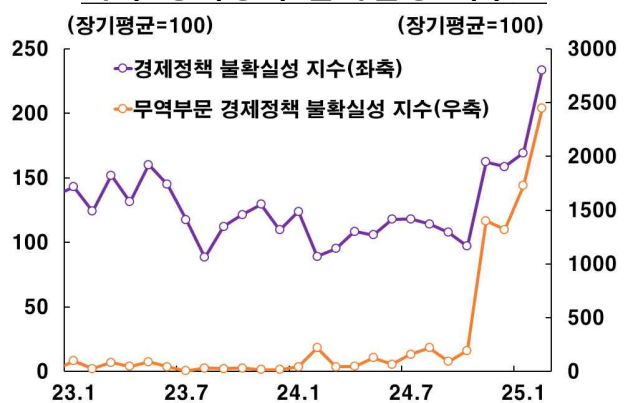
경제성장률 조정 내역¹⁾



주: 1) 2025년 기준

자료: 한국은행, KDI

미국 경제정책 불확실성 지수¹⁾²⁾



주: 1) Baker, Bloom, and Davis (2016)의 방법론으로 산출

2) 장기평균은 1990~2010년을 기준으로 산출

자료: Bloomberg

□ **[적극적 대응 긴급]** 소비심리 위축이 장기적인 경기 둔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극적이고 독립적인 경제 정책을 집행할 필요

① **(중앙정부)** 경제정책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시행된다는 신뢰를 조성

— 과거 탄핵 국면시 경제시스템이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되어 운영되어 정치적 불확실성의 영향을 최소화한 경험을 참고

— 위기의 사전예방을 위해 금융·외환시장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시장 변동성이 재차 확대되는 경우 정책당국이 적극적으로 대응

② **(지방정부)** 신속하고 과감한 재정지출을 통해 경기 회복을 견인

— 조기 집행률을 높여 선제적 재정지출*을 통해 경기 회복을 유도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재정 여력 확보에도 주력할 필요

* 2025년 제1차 도-시군 정책협의회(1.22)에서 도청은 상반기중 재정 조기집행 목표를 70%(7.8조원중 4조원)로 설정

— 숙박·외식 소비쿠폰 및 할인* 등을 통해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높여 소비증대를 도모

* 최근 정부는 비수도권 숙박 예약 시 최대 3만 원의 할인을 제공하는 할인 정책 등을 추진

③ **(민관협력)** '25년 강원방문의 해'를 민간부문과의 연계를 통해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역내 소비활성화를 도모

— 지역 특색을 살린 산천어 축제 등 대표 축제 콘텐츠를 발전시켜 자영업자 소상공인 업황을 개선하고 소비를 증진

— 동해선 개통*을 활용하여 관광 접근성을 높이고, 동해 인근의 낙후된 관광지를 재개발하여 지속적인 관광수요 창출 기반을 마련**

* 2025년 1월 동해중부선(강릉~부천) 개통으로 동해선 철길이 연결되며 두 달간 누적 이용객 36.5만 명을 기록

** 강원관광재단은 4월 중 강원특별자치도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며, 동해 중부선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초청 홍보 여행 운영 사업등을 준비중